DERIVATIVES SPOT

2022. 9. 28

삼성증권

글로벌투자전략팀

전균
Senior Analyst
gyun.jun@samsung.com

이영훈
Research Associate
yhoon95.lee@samsung.com

하반기 주가지수 정기변경 예상

KOSPI200 & KOSDAQ150 정기변경

- 12월 KOSPI200과 KOSDAQ150 정기변경 시행을 위한 심사기간은 5월~10월임. 9월 말 현재 예상 편출입 종목군을 선별하여 정기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KOSPI200, 필수소지배 2종목의 신규편입과 시총 하위 2종목의 제외가 예상됨. 역대 정기변경 중에서 가장 적은 정기변경이 예상되며, 유동주식비율 조정이 큰 변수임.
- KOSDAQ150, IT 등 10종목의 편출입 예상됨. 편입예상종목의 평균 시총은 0.8조원인 반면 제외예상종목의 평균 시총은 0.3조원으로 시총하위 종목의 리밸런싱이 예상됨.

WHAT'S THE STORY?

예상 종목 선별: 매년 하반기(12월)에 시행되는 KOSPI200과 KOSDAQ150의 정기변경을 위해서 각 시장의 대상종목 심사를 5월~10월까지 진행함. 해당 기간의 일평균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으로 정기변경 대상종목을 선별함. 9월 말 현재 1차적으로 편출입 예상종목을 선별하여 정기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KOSPI200 정기변경: 각 섹터별로 초대형주가 자리잡아 신규 편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 '22년 하반기에는 2종목의 교체로 역대 최소의 정기변경을 기록할 수 있음(직전 최소 '19년6월 4종목). 필수소비재의 롯데제과(A280360)와 삼양식품(A003230)이 신규 편입예상됨. 반면 삼양홀딩스(A000070)와 보령(A003850)이 제외예상 종목임.

KOSDAQ150 정기변경: 2022년 하반기 정기변경 대상종목은 현재 10종목으로 추정됨. KOSDAQ150 역시 역대 최소 변경을 기록할 수 있음(직전 최소 '22년6월 12종목). IT 섹터에서 6종목이 교체되며, 소비재와 건강관리 그리고 소재/산업재 섹터 등에서 4종목의 교체가 가능할 것임. 신규상장 6개월 미경과 종목이지만 대형주 특례조치로 성일하이텍과 HPSP가 KOSDAQ150에 편입될 수 있음.

2022년 하반기 KOSPI200과 KOSDAq150 정기변경 예상종목

시장	편입예상	섹터	제외예상	섹터
KOSPI	롯데제과	필수소비재	보령	건강관리
	삼양식품	필소소비재	삼양홀딩스	필수소비재
KOSDAQ	성일하이텍 (특례)	산업재	코엔텍	산업재
	HPSP (특례)	IT	압타바이오	건강관리
	카나리아바이오	자유소비재	CMG제약	건강관리
	디어유	IT	원익홀딩스	IT
	ISC	IT	카페24	IT
	이오플로우	건강관리	그래디언트	필수소비재
	넥스틴	IT	AP시스템	IT
	인탑스	IT	코나아이	IT
	파인테크닉스	IT	서울바이오시스	IT
	더네이쳐홀딩스	필수소비재	알서포트	IT

참고: 9월말 현재, 심사기간이 남아있어 예상종목은 유동적임
자료: KRX, 삼성증권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KOSPI200 12월 정기변경 예상

초대형주 상장에 따른 신규편입 기회 축소

KOSPI200 정기변경 방법론: KRX는 1년 2회(6월/12월) 선물 만기일 직후에 KOSPI200의 정기변경을 실시함. 정기변경을 실시하는 기준일은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영업일이며, 구성종목의 심사기간은 상반기 전년 11월~금년 4월, 하반기 금년 5월 ~ 금년 10월으로 각 6개월 기간임. 심사기준은 보통주를 대상으로 심사기간의 일평균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대금임.

심사대상에서 배제되는 종목은 신규상장 6개월 미경과 종목(특례편입 대상 제외)과 유동비율 10% 미만, 그리고 외국주식과 부동산회사, 인프라펀드 등임. 따라서 금번 12월 정기변경을 위한 심사대상 종목은 금년 5월 초 이전에 상장된 종목이어야 함.

KOSI200 구성종목의 심사는 GICS 기준 섹터별로 진행됨. 유가증권시장의 보통주를 대상으로 단순 시총 순위 1위 ~ 200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별 균형성을 고려하야 섹터별로 구성종목을 선정함. GICS 섹터는 금융/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건강관리, IT, 산업재, 소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업종임.

구성종목 선별방식은 모두 3차례로 진행됨.
① 편입 1차 조건 : 각 섹터별 누적시가총액 85% 이내 편입종목 (거래대금순 상위 85%이내)
② 편입 2차 조건 : 각 섹터별 구성종목 수 기준 섹터 내 90% 이내(편입조건) or 110% 이상(제외조건)
③ 3차 조건 : 제외대상 종목은 섹터 무관하게 시가총액 낮은 순위로 선정

섹터 내 대형주의 존재여부: KOSPI200의 정기변경 방법론에서, 신규편입의 1차 조건은 각 섹터별 누적시가총액 85% 이내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임. 사례를 보면, 특정 섹터에 5종목이 존재하며 대형주 A와 B가 포함되어 있음. 누적시가총액 85% 이내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은 A와 B이며, 누적시가총액 90.9%에 해당하는 C는 1차 편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만일 A의 시가총액이 5조원이 아니라 10조원이라면, B의 누적시가총액 비중은 87.2%이기 때문에 B종목은 1차 편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 이처럼 섹터 내에 초대형주가 편입되어 있을 경우, 신규편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1차 편입조건 사례: 누적시가총액 85% 이내

종목	시총 (십억원)	누적시총 (십억원)	비중 (%)	편입여부
A	5,000	5,000	50.5	O
B	3,000	8,000	80.8	O
C	1,000	9,000	90.9	X
D	600	9,600	97.0	X
E	300	9,900	100.0	X

자료: 삼성증권

금번 하반기 KOSPI200 정기변경 예상종목을 선별하기 위한 Data 집계 과정에서 보면, 섹터별로 시가총액 상위 2종목이 차지하는 누적시가총액 비중은 작게는 24.4%(금융)에서 많게는 80.1%(에너지)으로 비교적 천차만별임. 다만 시총 상위 2위 종목의 누적시가총액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섹터의 종목 중 신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IT 섹터의 경의 시총 2위종목인 'SK하이닉스'의 누적 시총비중이 78.5%에 달하기 때문에, IT 섹터에서 신규편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에 버금가는 초대형주가 나타나야 함. 또한 금융 섹터는 상대적으로 시총 2위의 누적시총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해당 섹터에는 대형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형주 급의 종목이 신규 편입될 가능성도 제한적임. 9월 말 현재 금융 섹터의 누적시총 비중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삼성증권'(일평균 시총 3.1조원)임.

반면 필수소비재 섹터의 시총 상위 2위인 'LG생활건강'의 누적시총 비중은 28.2%으로 비교적 낮은 편임. 필수소비재 섹터의 누적시총 비중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9월 말 현재 '대상'(일평균 시총 0.7조원)임. 해당 섹터의 중형주가 KOSPI200에 신규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섹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섹터별 시총상위 2개종목의 누적시총 비중 현황

섹터	종목	누적시총비중 (%)	섹터	종목	누적시총비중 (%)
IT	삼성전자	65.6	자유소비재	현대차	20.9
	SK하이닉스	78.5		기아	38.0
산업재	LG에너지솔루션	29.4	금융	KB금융	12.7
	삼성물산	35.8		신한지주	24.4
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42.4	소재	LG화학	22.1
	셀트리온	60.2		POSCO홀딩스	34.1
커뮤니케이션	NAVER	28.2	유틸리티	한국전력	60.5
	카카오	51.1		한국가스공사	76.6
에너지	SK이노베이션	49.2	필수소비재	KT&G	14.3
	S-Oil	80.1		LG생활건강	28.2

참고: 5월~9월 일평균시가총액 기준, 9월 27일 현재
자료: KRX, 삼성증권

역대 최소 정기변경 가능(신규편입)

필수소비재 2종목 신규편입 예상: '22년 하반기 KOSPI200 정기변경에서 9월 말 현재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필수소비재 2종목, 롯데제과(A280360)와 삼양식품(A003230)에 국한될 것으로 추정됨.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 섹터 내에 초대형주 또는 대형주가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KOSPI200 구성종목 편입 1차 조건인 "누적시총비중 85% 이내"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예를 들어 산업재의 '롯데렌탈(A089860, 일평균 시총 1.3조원)'의 경우, 산업재 누적시총 비중 88%에 해당하여 1차 편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편입대상으로 선별되지 못하였음.

편입예상종목으로 선정된 '롯데제과'와 '삼양식품'은 필수소비재 섹터 내에서 누적시총 비중이 각각 79%와 83%에 해당하는 종목임.

소재업종 편출입 유동적: 소재업종의 '미원에스씨(A268280)'과 미원상사(A002840)'은 업종내 누적시총비중이 각각 81%와 83% 수준임. 1차 편입조건을 충족하였지만, 1차 편입조건의 부가조건인 "업종내 거래대금 상위 85% 이내"를 충족하지 어려운 상태임. '미원에스씨'와 '미원상사'의 거래대금순위는 각각 13%와 16%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편입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음.

2차 편입조건 충족여부: 소재업종의 '유니드(A014830)은 소재업종의 누적시총 비중 82%에 해당하기 때문에, 1차 편입조건을 충족하였음. 그러나 KOSPI200의 2차 편입조건(buffer ±10%)인 "기존 구성종목 수의 90% 이내로 순위 편입여부"를 현재로서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소재업종의 기존 KOSPI200 구성종목은 30종목이며, "기존 구성종목 수의 90% 이내" 조건은 27위 이내이어야 함. 유니드의 9월 현재 일평균 시가총액 순위는 29위이기 때문에, 2차 편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임.

최소 2종목, 많으면 5종목 편입예상: 필수소비재의 '롯데제과'와 '삼양식품'이 9월 말 현재 KOSPI200에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재업종의 '미원에스씨'와 '미원상사', 그리고 '유니드'는 1차와 2차 편입조건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KOSPI200 신규편입종목은 최소 2종목에서 최대 5종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하반기 정기변경 대상종목이 최소 2종목으로 확정될 경우, KOSPI200 정기변경 역사상 가장 적은 정기변경이 될 것임. 직전 최소 정기변경은 2019년(6월)에 진행된 4종목의 정기변경임. 당시 '휠라홀딩스'와 '애경산업', '한일현대시멘트'와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신규 편입되었음.

KOSPI200200 정기변경 교체종목 수

시기	변경 종목수	시기	변경 종목수
2022년 상반기	7	2019년	4
2021년 하반기	6	2018년	4
2021년 상반기	6	2017년	11
2020년 하반기	10	2016년	11
2020년 상반기	11	2015년	13

참고: 편입종목 기준, 2020년 이후 1년 2회 변경으로 전환
자료: KRX, 삼성증권

제외예상 종목군

소형주 제외예상: 기존 구성종목이 제외되는 경우는 2차 편입조건인 "구성종목 수의 110% 이상으로 벗어난 경우"임. 9월 말 현재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은 필수소비재의 '삼양홀딩스(A000070)'와 건강관리업종의 '보령(A003850)' 2종목임. 기존 구성종목의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현재 2종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 확인한 신규편입 예상종목 중 2종목만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삼양홀딩스와 보령의 일평균 시가총액은 각각 6,300억원과 7,500억원 수준임. KOSPI200 내에서 (상장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9월 말 현재 190위 이하의 종목임. 해당 종목의 제외가 이루어진다면, KOSPI200내 소형주의 교체가 진행되어 KOSPI200의 유가증권시장 커버리지가 소폭이나마 증가할 수 있음.

필수소비재, 삼양홀딩스 제외예상: 필수소비재 업종에서는 '삼양식품'의 신규편입과 '삼양홀딩스'의 제외가 발생할 수 있음. 삼양홀딩스는 기존 구성종목수의 115%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며, 제외대상 중 시가총액이 가장 작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건강관리, 보령 제외예상: 건강관리 업종에서는 '보령'이 제외될 수 있음. 보령은 건강관리 업종 내에서 기존 구성종목수의 125%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외대상으로 선정됨. 건강관리 업종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초대형종목이 신규상장되면서 중소형주의 시가총액 순위가 밀려났기 때문임.

정기변경 리밸런싱 충격 최소화, 유동주식비율 변동이 관건

사상 최소 정기변경 가능성: 9월 말 현재 KOSPI200의 2022년 하반기 정기변경 예상종목군은 최소 2종목임. 제외대상 종목이 2종목만 선별되었기 때문에, 신규 편입될 수 있는 종목 역시 2종목에 그칠 수 있음. 더구나 제외되는 종목과 편입되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각각 7,000억원 대와 8,000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편출입에 따른 리밸런싱 비용도 매우 제한적일 것임. 2022년 하반기 정기변경에 따른 시장충격 역시 해당 종목에 국한될 것임.

유동주식비율조정, 리밸런싱의 관건: KOSPI200 정기변경과 동시에 기존 구성종목의 유동주식비율 조정도 진행됨. KRX는 자사주 매입/매도나 대주주의 지분변동, 유무상 증자 등으로 인해 기존 유동주식비율이 ±5% 이상 변동될 경우 ±1%pt 단위로 유동주식비율을 조정함. 유동주식비율 조정여부는 최근 사업보고서와 지분변동 주요 공시 등을 참조함.

2022년 하반기 정기변경이 최소 2종목에 그치고 리밸런싱 규모도 미미할 것임. 이에 따라 유동주식비율 조정이 KOSPI200 추종펀드(인덱스펀드, ETF 등)의 리밸런싱에 더욱 큰 비용으로 작용할 것임. '22년 4월 이후 진행된 기존 KOSPI200 구성종목의 상장주식수 변동 사유를 살펴보면, 주식소각(자사주 소각)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유상증자와 CB/BW전환, 감자 등의 순으로 상장주식수 변동이 발생하였음. 참고로 주식소각은 분자(자사주)와 분모(상장주식수)를 동시에 감소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유동주식비율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상장주식수가 명시적으로 변동된 사유 이외에 대주주의 지분변동이나 우리사주/자사주 지분변동 등으로 상장주식수 내에서 유동주식비율이 조정되는 사유도 추가 확인할 수 있음. 11월까지 지분변동 공시 등을 참조하여 유동주식비율 조정 사유를 업데이트할 예정임.

2022년 하반기 KOSPI200 정기변경에서는 구성종목의 편출입보다 유동주식비율 조정이 리밸런싱 측면에서 더 큰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하단의 상장주식수 변동뿐만 아니라 대주주 지분변동 등까지 유동주식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향후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임.

'22년 4월 이후 진행된 주식수 변경사유

사유	종목	변동주식수	시기
감자	카카오	-3,239,741	5/16
CB전환	대한항공	20,399,836	7/14
BW전환	두산에너빌리티	32,462,815	4/20~7/20
유상증자	하나투어	2,100,000	7/12
유상증자	고려아연	993,158	9/8
유상증자	지누스	1,431,981	6/10
주식소각	메리츠화재	-6,842,000	7/21, 9/22
주식소각	메리츠금융	-3,479,472	7/5, 9/20
주식소각	POSCO홀딩스	-2,615,605	9/5
주식소각	KB금융	-3,455,426	8/24
주식소각	메리츠증권	-42,020,000	4/6, 7/13
주식소각	하나금융	-4,338,586	5/16
주식소각	신한지주	-3,665,423	5/9

자료: KRX, 삼성증권

KOSDAQ150 12월 정기변경 예상

KOSPI200보다 강한 구성종목 선정기준

KOSDAQ150 정기변경 방법론: KRX는 1년 2회(6월/12월) 선물 만기일 직후에 KOSDAQ150의 정기변경을 실시함. 정기변경을 실시하는 기준일은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영업일이며, 구성종목의 심사기간은 상반기 전년 11월~금년 4월, 하반기 금년 5월 ~ 금년 10월으로 각 6개월 기간임. 심사기준은 보통주를 대상으로 심사기간의 일평균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대금임.

심사대상에서 배제되는 종목은 신규상장 6개월 미경과 종목과 유동비율 10% 미만, 그리고 외국주식과 SPAC, 부동산회사, 인프라/선박펀드 등임. 한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신규상장 6개월 미만 등), 심사일 기준 15영업일의 일평균 시가총액 순위가 50위 이내일 경우에는 KOSDAQ150에 편입될 수 있음(대형주 특례, cf KOSPI200의 특례편입과 다른 조건임).

KOSDAQ150 구성종목의 심사는 GICS 기준 섹터별로 진행됨. GICS 섹터는 금융,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건강관리, IT, 산업재, 소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업종임. KOSPI200과 달리 금융과 부동산을 별도의 섹터로 분리하였음.

구성종목 선별방식은 모두 3차례로 진행됨.
① 편입 1차 조건 : 각 섹터별 누적시가총액 60% 이내 편입종목 (거래대금순 상위 80%이내)
② 편입 2차 조건 : 각 섹터별 구성종목수 기준 섹터 내 80% 이내(편입조건) or 120% 이상(제외조건)
③ 3차 조건 : 제외대상종목은 섹터 무관하게 시가총액 낮은 순위로 선정

또한 일평균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 중 300위를 밑도는 소형주는 KOSDAQ150 구성종목에서 제외하는 '소형주 특례'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

심사기준 미충족 신규상장종목: KOSDAQ150의 심사기준에서 6개월 신규상장 미경과 종목은 심사대상에서 배제됨. 즉 5월 이후 상장된 신규상장 종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대형주 특례(시총순위 50위 이내)를 고려하면, 성일하이텍과 HSPS는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편임.

5월이후 신규상장종목 현황

종목	상장일	시가총액 (십억원)	대형주특례 가능성
성일하이텍	07월 28일	1,660	O
HPSP	07월 15일	1,210	O
새빗켐	08월 04일	690	X
대명에너지	05월 16일	390	X
가온칩스	05월 20일	340	X
보로노이	06월 24일	320	X
루닛	07월 21일	310	X

참고: 9월27일 종가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편출입 예상종목군

대형주 특례 2종목 예상: KOSDAQ150 구성종목의 대형주 특례는 신규상장 6개월 미경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닥시장의 50위 이내인 경우(심사일기준 15영업일 평균시총)에는 대형주 특례로 편입이 가능함. 9월 말 현재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50위 이내에 들어가는 신규상장 종목은 앞서 확인한 대로 '성일하이텍(A365340)'과 'HPSP(A403870)'이 대형주 특례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

심사기준일은 10월 말 영업일 기준이므로, 해당 2종목의 대형주 특례 충족여부는 유동적임. 다만 '성일하이텍'과 'HPSP'의 시가총액이 각각 1.6조원과 1.2조원에 달해, 현재로서는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순위 50위 이내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임.

IT섹터 다수 편출입 예상: IT섹터는 KOSDAQ150 구성종목 중 현재 53종목이 편입되어 있어, 전체 구성종목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섹터임. KOSDAQ시장의 특성상 IT섹터 구성종목의 부침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편출입 대상도 가장 많은 섹터임. 9월 말 현재 IT섹터의 편출입 예상종목은 6종목임.

2022년 하반기 정기변경에서는 대형주 특례 대상인 'HPSP' 이외에도 1차와 2차 편입조건을 충족하는 '디어유(A376300)'와 'ISC(A095340), '넥스틴(A348210)과 '인탑스(A049070), '파인테크닉스(A106240) 등 모두 6종목이 편입예상 종목으로 선별됨. 편입예상 종목군의 일평균 시총은 0.5조원(파이테크닉스)부터 1.2조원(HPSP)까지 비교적 중형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IT 섹터 내에서 제외예상 종목군은 '원익홀딩스(A030530)'와 '카페24(A04200)', 'AP시스템(A265520)'과 '코나아이(A052400)', '서울바이오시스(A092190)'와 '알서포트(A131370)' 등임. 특히 알서포트는 현재 KOSDAQ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300위를 하회하고 있어, 소형주 배제조항에 해당되는 종목이기도 함. 제외예상 종목군의 일평균 시가총액은 3,000억원 내외에 불과함.

소비재 및 소재, 건강관리 신규편입: 소비재 섹터에서는 필수소비재의 '더네이쳐홀딩스(A298540)'와 자유소비재의 '카나리아바이오(A016790)'가 편입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카나리아바이오는 올해 6월 액면분할이후 8월에만 1,368만주의 유상증자를 실행함에 따라, 6월 액면분할 이전에 비해 시가총액이 최대 +50% 이상 급증하였음. 단기간의 상장주식 급증이 심사기간(5월~10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카나리아바이오의 KOSDAQ150 편입 가능성이 높아짐.

산업재 섹터의 '성일하이텍(A365340)'이 대형주 특례로 편입이 확실시됨. 건강관리 섹터의 '이오플로우(A294090)'도 1차 및 2차 편입조건을 충족하여 KOSDAQ150 구성종목으로 편입이 예상됨.

건강관리, 소비재와 산업재 제외예상: 2022년 하반기 KOSDAQ150 정기변경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은 앞서 확인한 IT 섹터의 6종목과 건강관리 2종목, 소비재와 산업재 각각 1종목 등 모두 10종목임.

건강관리 섹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종목은 '압타바이오(A293780)'와 'CMG제약(A058820)'임. 해당 종목들은 2차 편입조건인 "구성종목 수 순위의 120%를 벗어나는" 종목들임. 자유소비재 섹터에서는 '그래디언트(A035080)'가 섹터 내 구성종목 수 순위의 130%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외예상 종목으로 선별되었음. 산업재에서는 '코엔텍(A029960)'이 제외예상 종목으로 선별되었음. 건강관리와 소비재, 산업재 섹터의 제외예상 종목군 일평균 시가총액은 3,000억원 중반 내외임. 금번에 제외예상 종목으로 선별된 종목 대부분이 시가총액 4,000억원을 밑도는 소형주 종목임.

2022년 하반기 편출입 예상 10종목: 2022년 KOSDAQ150 구성종목의 정기변경에서 편출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모두 10종목임. 성일하이텍과 HPSP가 대형주 특례로 편입예상되며, IT 섹터를 중심으로 신규편입이 8종목 선별되었음. 신규편입 예상종목의 일평균 시가총액은 4,300억원(더네이쳐홀딩스)부터 1.3조원(성일하이텍)에 분포함.

제외예상 종목군은 대부분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미만의 종목들이므로, 금번 정기변경을 통해 KOSDAQ150 구성종목은 소형주의 제외와 중대형주의 편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하반기 KOSDAQ150 정기변경 예상종목

편입예상	섹터	제외예상	섹터
성일하이텍 (특례)	산업재	코엔텍	산업재
HPSP (특례)	IT	압타바이오	건강관리
카나리아바이오	자유소비재	CMG제약	건강관리
디어유	IT	원익홀딩스	IT
ISC	IT	카페24	IT
이오플로우	건강관리	그래디언트	필수소비재
넥스틴	IT	AP시스템	IT
인탑스	IT	코나아이	IT
파인테크닉스	IT	서울바이오시스	IT
더네이쳐홀딩스	필수소비재	알서포트	IT

참고: 9월말 현재
자료: KRX, 삼성증권

KOSDAQ150 역대 최소변경 가능성: KOSPI200과 마찬가지로 KOSDAQ150 역시 2022년 하반기에 역대 최소 정기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22년 하반기 정기변경에서는 9월 말 현재 10개 종목의 편출입이 예상되는 상황임. 역대 가장 적은 정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는 직전 2022년 상반기 12종목임.

KOSPI200의 경우 섹터별로 초대형주의 존재로 신규 편입종목의 편입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KOSDAQ150의 경우에는 섹터별로 초대형주의 존재가 적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신규편입의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님. 다만 중대형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뛰어넘는 대형주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규편입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임.

결국 KOSDAQ시장 역시 중대형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으로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KOSDAQ150의 정기변경 교체종목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인 것으로 해석됨. 이미 KOSPI200의 정기변경 교체종목 수가 한 자릿수로 진입한 것처럼, 조만간 KOSDAQ150 역시 신규상장이 재차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정기변경 교체종목이 한 자릿수로 진입할 가능성이 농후함.

KOSDAQ150 정기변경 교체종목 수

시기	변경 종목수	시기	변경 종목수
2022년 상반기	12	2019년 하반기	17
2021년 하반기	15	2019년 상반기	12
2021년 상반기	16	2018년 하반기	12
2020년 하반기	17	2018년 상반기	14
2020년 상반기	12	2017년 하반기	13

참고: 편입종목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유무상 증자 등으로 유동주식비율조정도 상당할 것: 올해 들어 코스닥 상장기업의 유무상증자 활동이 활발하였음. COVID-19 충격 이후 신사업 진출과 '20년~'21년 IPO 성행 등의 요인으로 2022년에도 유무상 증자를 통해 운영자금 등을 확보한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함. 유무상 증자는 기존 유동주식비율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주식배당과 CB/BW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등도 기존 유동주식비율의 변동요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

KOSDAQ150의 2022년 하반기 정기변경이 최소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유동주식비율 조정에 따른 Passive Fund의 리밸런싱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수 있음. 성일하이텍과 HPSP 이외에는 대형주의 신규편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주의 유동주식비율 조정은 그만큼 리밸런싱 규모를 확장시키기 때문임. 대주주의 지분변동 등 상장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유동주식비율 조정까지 업데이트하여 정기변경 이전에 유동주식비율 조정까지 포함한 신규 KOSDAQ150 구성종목 관련 자료를 작성할 예정임.

'22년 4월 이후 진행된 주식수 변경사유

사유	종목	변동 주식수	시기
유무상증자	다원시스	3,000,000	5/11
유무상증자	메지온	17,828,012	5/12
유무상증자	삼강엠엔티	14,629,747	9/16
유무상증자	서진시스템	18,790,321	5/4
유무상증자	셀리버리	17,343,071	8/12
유무상증자	에코프로비엠	74,952,352	7/7, 7/15
유무상증자	엔지켐생명과학	70,240,065	9/21
유무상증자	카카오게임즈	3,474,101	9/5
유무상증자	코리아센터	29,916,303	4/12
주식배당	셀트리온헬스케어	3,065,845	4/21
주식배당	셀트리온제약	1,094,265	4/21
주식배당	휴온스	1,075,878	4/22
CB/BW 전환	비덴트	4,406,893	4/11, 8/12, 8/24
우선주 보통주 전환	코리아센터	29,916,303	4/12
주식소각	펄어비스	-1,986,645	5/26

자료: KRX,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